

담당부서 : 공보관

담당자 : 김유경 주무관

연락처 : 055-211-2064

경남도지사, “경남도정의 초점, 소외된 도민 위한 복지정책에 맞춰야” 당부

- 박완수 지사, 7일 확대간부회의서 경남도 복지정책 실태분석 및 재정비 당부
- “경남도 복지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노력해야”
- 합천 수해 관련 도내 하천 일제 점검 및 실국 별 도민들과 소통 채널 확보 당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소외된 도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경남도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나 기구의 기능 분석과 실태조사도 주문했다.

7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 및 각종 복지 관련 재단과 센터가 있다”며 “이들 기관이 소외된 도민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을 통해 소외된 도민들에게 복지 서비스가 피부에 와닿도록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남도정의 초점을 복지 서비스의 체계적 전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복지 분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도민들은 경남도정의 역할을 체감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복지 관련 실국을 2개, 3개 만드는 등 과감하게 기구와 조직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천 수해와 관련, 강우에 대비한 도내 하천 일제 점검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난 6일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을 방문했다. 경남도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로 설치된 임시도로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근 하천이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지사는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공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내 하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29일에서 5월 3일까지 이어진 태국과 베트남 교류·협력 방문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박 지사는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들을 산업 및 기술, 농업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경남도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과 SNS 등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방콕시를 예로 들며 국장 및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선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유치 등 최근 경남도가 거둔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경남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도민들에게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언급했다.

박 지사는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동부경남 발전 계획(밀양, 김해, 양산)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릴 것과 동부경남에 이어 서부경남, 남해안 연안, 북부경남 발전계획 또한 각각 수립해 발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 인근 지역에서 창원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상습적인 정체를 언급하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터널이나 도로 신설의 적극적 검토도 주문했으며, 이달 말 개청할 우주항공청과 관련,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를 경남도에 초청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도 주문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김유경 주무관(055-211-20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